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시정연설

(2면에서 계속)

농업생산을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하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을 비롯하여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할뿐 아니라 모든 농촌을 부유한 농촌으로 전면시켜야 합니다.

살림집건설을 기본으로 지역적, 지대적특성에 맞게 농촌건설계획을 바로 정하고 단계별로 모가 나게 수행하여 우리 나라 농촌의 급속한 진흥이 실지 눈에 띄이게, 농민들의 피부에 가당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수산업을 추켜세워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는 바다어로, 바다양식을 활발히 진행하는것과 함께 모든 강하천, 호수들에서 새끼물고기방류와 그물우리양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양어활동을 대대적으로 근기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수산자원의 보호, 종식정형에 대한 조사를 과학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수산물생산을 계획적으로 늘려나가는것입니다.

소비품문제를 풀기 위한 경공업혁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비품의 질제고는 경공업혁명에서 종자이고 기본 방향입니다.

당면한 계획수행에만 급급하면서 나날이 분명해지는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을 외면하고 락후한 소비품을 계속 생산한다면 나라의 경공업실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절대로 발전을 기대할수 없게 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원료, 자재의 질적보장과 생산공정의 현대화,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따라세우고 인민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품들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공업을 추켜세워 지방이 변하고 자체로 발전하는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시, 군들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제구실을 하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될수 있습니다.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자체의 원료원천으로 군내수요를 보장해나가는 실현적경험을 전국의 시, 군들로 확대하는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내오고 설계와 시공을 비롯하여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 군들의 능력이 약한것만큼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린 다음에는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원자재보장대책을 세워주고 초기투자도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공업공장들에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힘을 넣어 군내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하며 확대재생산을 하여 공장을 자체로 운영해나가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기간공업부문이 웅당 계속 기치를 들고 인민경제전반을 견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간공업부문은 자립경제의 주추이고 기둥이며 이 부문에서 생산적업이 일어나야 인민경제전반이 용을 쓸수 있고 다음단계에로의 경제발전도 확고히 내다볼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이미 많은 자금을 지출하였으며 전력공업을 비롯한 여러 기간공업부문의 현대화와 능력확장,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경제실무적대책들도 계속 세워나가자고 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에서는 정비보장전략에 따르는 계획들을 완강하게 집행해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생산계획을 드림없이 수행하여 인민경제의 장성과 발전의 동력, 잠재력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로력관리,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정상적으로 예견성있게 잘하여 각종 설비사고로 인한 경제적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국가적립장에서 생산소비적립계를 강화하여 기간공업부문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절약이자 중산이고 애국이라는 관철점에 로력과 에너지를, 자재, 부지 등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수 있게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개선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지로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망적인 사업들을 설계적전향하고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현행생산에만 급급하는것은 보신이고 후퇴이며 혁명을 하지 않겠

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업을 설사 그것이 크든작든 먼 후날에 가서도 우리 후손들이 유감없이 향유할수 있도록 설계하고 작전하며 창조하는것을 신조로 하여 투쟁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애국자입니다.

사정으로 인민을 위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함이라면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내세워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동시에 완강히 밀고나가야 하는것입니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대규모온실농장건설들을 비롯하여 앞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들에 계속 큰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통이 큰 건설대상들을 마음먹고 전개해나가자면 중앙과 지방들에 능력이 큰 건설생산기지를 꾸리고 마감건설을 비롯한 질좋은 건설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망적인 대건설작전들을 끊임없이 펼치고 성과적으로 완결하는 투쟁을 통하여 인민의 세기적숙원이 하나하나 빛나게 실현되어나가는 우리 국가의 발전상과 양양한 진도를 과시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동서해를 련결하는 대운하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합니다.

현시기 공화국정부가 힘있게 추진해야 할 중대사는 국토관리사업과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인한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는 지금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해마다 재난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물을 다스리는것은 천기를 다스리는것이며 치수사업은 중앙기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치수사업은 강바다이나 파고 강기슭에 옹벽이나 쌓는것으로 그치고있는데 과학적인 증장기계획 다시말하여 치수전략을 세우고 실행해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강하천들의 물조절능력을 정확히 판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완충지점들도 조성해놓으면서 수리조중계를 완비하는것을 비롯하여 물관리를 과학화하여야 합니다.

자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당면하게는 큰물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력량과 기계를 모든 도, 시, 군들에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산림복구전투와 사방야계사업, 해안방조제공사, 도로개건을 비롯한 국토환경보호와 관리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동지들! 교육과 과학기술, 보건사업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인재, 실지 능력있는 인재들과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을 푸는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공화국정부는 인재전략, 과학기술발전전략을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교육사업이 질적수준에 있어서 발전하는 세계적추세와 시대적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실전능력을 갖춘 쓸모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지향되지 못하고 순수 교육 그 자체를 위한 교육, 점수평가를 위한 교육으로만 국한되다보니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있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이 실지 현실에서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바칠수 있게 학과목을 바로 선정하는 사업을 잘하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학생들의 실력을 월등하게 올려세워야 합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기술대학들의 교육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 모든 졸업생들을 유능하고 경쟁한 과학기술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교원, 학생들에게 교육조건, 학습조건,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데 국가적 힘을 계속 넣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수준과 역할을 높이고 기술인재자원을 효과있게 증진, 관리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면 연구수단과 인재가 준비되어야 하는것만큼 국가적으로 항상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실속있는 대책을 취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는바이지만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건수나 채우는 식의 태도를 철저히 경계하고 1년에 다문 몇건이라도 나라의 경제를 실지 들어올릴수 있는 온

전한 과학기술성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진전과학기술인재화의 중요한 거점인 과학기술보급기지의 운영정형을 정상적으로 로해하고 실속있게 총화하면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과학기술성과들을 공유하고 흡수, 통보하며 과학기술자료들의 열람조건을 잘 보장해주는 사업, 우수한 단위와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 평가하는 사업을 잘하여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증진시킬수 있게 의료봉사사업을 계속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보건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보건의 현실태가 전면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수준과 능력제고의 절박성이 더욱 립증되었습니다.

인민의 생명건강이 첫걸리는 관철점에 의료봉사사업에서 절실한 문제들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나라가 모든 의료품을 자체로 충당할수 없는 조건에서 인민들의 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의료품을 수입해서라도 원만히 대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약품들을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로기구공장, 의료용소모품공장들의 신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도, 시, 군병원들을 일신시키고 약국들을 표준대로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보건부문에서 모든 의사, 간호원들이 인간생명의 수호자로서의 자질과 공산주의적인 품모를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악성비루스박멸투쟁기간에 만사함을 감동시켰던 의료부문 일꾼들의 자기희생적인 헌신의 정신세계를 누구나 다 적극 따라배우도록 장려함으로써 《정성》이라는 두 글자를 뜨거운 심장으로 체득한 훌륭한 의료일꾼들을 나라의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의학과과학기술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으며 인민적이고 선진적이며 효율적인 의료봉사체도를 완비해나가야 합니다.

국가방역능력건설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악성전염병들이 계속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것만큼 이는 한시도 지체할수 없는 국가중대사업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국가방역능력건설과 관련하여 제시된 과업들을 건별로 따져가면서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경내밖의 류동적인 전염병상황과 특성을 항상 긴장하게 주시하며 만약 그것이 류입되는 경우 즉시 발견하고 제압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나라 보건전문가관들에서 옮겨올에 신형코로나비루스전파와 함께 위험한 돌림감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전문가들은 지난 5~6월에 악성전염병을 경과하면서 우리 사람들속에 형성되었던 항체력가가 10월경에는 떨어질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때문에 확립검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는것과 함께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 주민이 자체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것을 권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현 국제정세는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반동사이의 모순,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력구도가 명백해지고 미국이 제창하는 일국세계로부터 다국세계로의 전환이 눈에 띄이게 가속화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현 국제정세의 발전추세와 자주강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갈것입니다.

대외사업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존엄사수와 국위제고, 국익수호를 공화국외교의 제일사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주변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배격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조하면서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외교전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이상의 과업들을 관철하여 오늘의 자랑찬 승리를 사회주의건설의 더 큰 승리로

이어가자면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지휘하며 자기 활동을 당정책실현으로 확고히 지향시켜야 합니다.

모든 정부기관들이 당의 결정지시를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대로 집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강하게 세우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것을 어떤 경우에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는 정권기관들의 사업은 대단히 복잡하고 방대하며 그만큼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정권기관들은 자기 지역에서 존엄높은 공화국정권을 대표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졌다는 사명감을 특특히 명심하고 자기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 자기 단위앞에 부과된 당과 정부의 정책, 지시를 전적으로 맡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며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주민들의 사업과 활동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되어나갈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

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들이 모든 아이들, 모든 세대들에 골고루 빠짐없이 가당도록 헌신적노력을 기울이며 먹는물문제, 펄갠문제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생활상문제를 항상 알아보고 사소한 불편과 고통도 겪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꾼들이 비상한 사상적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분발, 분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꾼들은 말대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라는 부름은 결코 그 어떤 명이나 직권이 아니며 인민에게 복무해야 할 본연의 사명을 떠나 일꾼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일꾼들이 편안하고 호의호식하면 벌써 그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며 인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차례지게 됩니다.

모든 일꾼들은 자기 위치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많은 고통을 해야 할 자리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며 잠시도 헛 눈을 팔지 말고 항상 중앙감속에서, 긴장된 책임의 식속에서 자기 임무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일감이 제기되면 회피하거나 적당히 굶뎠 생각을 할것이 아니라 솔선 온몸을 내내고 치밀하게 작전지휘하며 이신작적의 기풍으로 투신하면서 훌륭한 결실로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당과 인민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자신들을 부단히 정신도덕적으로 수양단련하며 혁명박애, 일박에 모르고 말은 본분을 손색없이 해나갈줄 아는 진짜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대의원동지들! 우리는 이제 곧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74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자주강국의 위상을 더욱 뚜렷이 과시하는 또 하나의 특대사변을 자기의 긍지높은 력사에 찬연히 आरो새기었습니다.

우리의 송고한 리념,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이 성과 승리의 더 높은 단상으로 오를수록 우리는 더 큰 시련과 역경을 맞받아 뚝고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류레없는 극난을 동반하고있으며 이제 우리 앞길에 또 어떤 도전이 막아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후호의 주춤과 동요도 없이 분명고 전진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며 더욱 강해질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업도,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로선도 모두 정의이고 진리이며 우리에게 이 세상 누구도 깨뜨리지 못할 당과 인민대중이 역적으로 결합된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이 있기때문입니다.

동지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며 우리모두가 분발하고 또 분발할수록 그 승리는 더 빨리 앞당겨질것입니다.

모두다 한마음한뜻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외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십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